

농민항쟁의 측면에서 본 1946년 10월사건

경북 영천의 사례연구

김상숙

대구사회연구소 연구원

〈논문요약〉

1946년 10월 대구항쟁이 일어난 뒤 영천의 항쟁은 10월 2일 밤부터 시작하여 며칠간 지속되었다. 영천항쟁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항쟁에 다수의 인원이 참여했고 항쟁 강도가 상당히 높았다. 영천항쟁은 대구에서 군 단위 → 면 단위 → 마을 단위로 순차적으로 전파되었는데, 이와 같은 전파형태를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지역 자체에 외부의 영향을 신속하게 수용하여 마을 단위로까지 전파할 수 있는 군 단위, 면 단위의 주도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영천항쟁은 군 인민위원회 등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 친일세력이나 미군정의 식량공출정책을 반대하는 다양한 층들이 참여했다. 항쟁 주도층을 몇 갈래로 나눠보면 첫째, 항일운동을 했던 지식인, 지역 명망가들로 구성된 군 단위 지도자급 인사들이 있다. 둘째, 면 단위·마을 단위의 지도자나 여론 주도층을 들 수 있다. 이 두 부류의 인사들은 지주, 지식인층, 마을유지들로서 항쟁 당시 연령대도 다소 높은 편이었다. 셋째, 청장년층으로 상인과 학생, 소작농민이나 하층민 가운데 행동세력으로서 선봉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다. 이처럼 항쟁에 다양한 인사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것은 영천항쟁이 특정한 계급의 틀을 넘은 전선(front)의 성격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계급적 동질성에 의해 결합한 하층민 조직, 일가주의적 동질성에 의해 결합한 친족공동체, 마을 자치조직의 전통 등이 사회경제적 원인이나 이념적 요소의 기저에서 이러한 전선 형성을 위한 일상적 조직화의 기반이 되었다.

1946년 10월에 일어난 영천항쟁의 양상은 조선 후기에 발생했던 전통적 농민항쟁과 흡사한 면이 있다. 특히, 1946년 영천읍 항쟁은 1894년 영천항쟁의 전개형태와 유사한 면이 있다. 항쟁의 주도조직인 인민위원회 등의 참여인사를 보면 조선 후기 농민항쟁의 주도조직인 '향회'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었으며, 항쟁의 선봉대가 되었던 하층민의 노동조직도 당시 농민항쟁의 주도조직인 '초군(나무꾼)'들의 조직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물론 전통적 항쟁에 비해 1946년 10월항쟁에는 외래적 힘의 규정력이 훨씬 더 중층적이고 막강했다. 그러나 해방 이후 미군정기에 지역공동체의 외부세력에 의해 전파되었던 영천항쟁 속에는 불과 반세기 전 지역 농민들이 수행했던 전통적인 항쟁의 경험들이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어 있었다.

■ 주요어: 1946년 10월항쟁, 대구·경북, 영천, 미군정기, 농민항쟁

1. 머리말

1946년 10월항쟁은, 미군정이 친일관리를 고용하고 토지개혁을 지연하며 식량공출을 강압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맞서, 1946년 10월 1일 대구에서 일어나 12월 중순까지 70여 일 동안 전국 73개 시군으로 확산되었던 사건이다. 이 항쟁은 갑오농민전쟁이나 3·1운동에 버금갈 정도로 대규모로 일어난 것으로 제주4·3항쟁, 여순항쟁과 더불어 해방정국 최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경북지역을 대상으로 한 해방전후사나 한국전쟁사 연구가 부족했던 탓인지 이 항쟁은 제주4·3항쟁이나 여순항쟁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계 연구를 통해 조명되지 못했다.

특히 그간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 항쟁을 좌익 주도의 폭동으로

보던 시각에 맞서 항쟁으로서의 성격 규명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9월 노동자총파업의 연장 속에서 10월 1일에서 2일 사이에 일어난 대구의 도시항쟁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당시 항쟁 참가자의 다수를 차지했던 농촌지역 농민들의 항쟁에 대한 고찰은 부족했다. 물론 브루스 커밍스(1981; 국역 1986)는 추수봉기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해구(1988)는 전민항쟁이라는 차원에서 경북항쟁을 포함한 전국 농민들의 항쟁을 다루고 있으나, 이들도 개괄적으로 실태를 파악하는 수준에서 고찰하고 있을 뿐, 지역 단위의 항쟁을 미시적으로 다루면서 농민항쟁으로서의 특수성을 고찰한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1946년 10월항쟁의 전개양상을 당시 항쟁이 가장 격렬하게 일어났던 경북 영천의 사례를 중심으로 농민항쟁이라는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영천항쟁은 커밍스와 정해구의 연구에도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커밍스 1986, 447; 정해구 1988, 113, 140). 특히, 정해구는 경북 각 지역의 항쟁을 항쟁의 강도에 따라, ①항쟁의 핵심지역, ②폭동성 항쟁지역, ③조직적 항쟁지역, ④우익강세지역, ⑤지리상의 항쟁 미약지역으로 나누었다. 더구나 정해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항쟁 시 과격행위가 통제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시의 경북항쟁을 조직적 항쟁과 폭동성 항쟁 등으로 분류하고 영천을 후자의 대표적 사례로 보고 있다. 그는 이때, 과격한 행위가 통제되지 않은 경우는 폭동성 항쟁으로, 과격한 행위가 통제된 경우는 조직적 항쟁으로 보면서 경북 북부지역의 항쟁은 비교적 조직적인 성격을 보였던 반면, 영천을 포함한 경북 남부와 대구 주변지역이 비교적 폭동적인 성격을 나타냈다고 보았다. 그리고 전자의 지역은 일제강점기 후반 적색농조조직 지도자들의 영향이 컸던 지역으로 좌익세력이 강력하여 항쟁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에 비해, 후자의 지역은 전자의 지역과 달리 항쟁지도부가 없고 비조직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농민항쟁의 일반적 모습을 볼 때, 선행연구에서처럼 폭력성=비조직성, 비폭력성=조직성으로 해석하여 항쟁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타

당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영천항쟁의 전개양상과 특징을 살펴본 뒤, 실제로 이 지역의 항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조직적이었던지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영천항쟁의 주도층과 그들의 조직적 기반을 살펴보고, 영천지역에서 19세기에 일어났던 농민항쟁의 양상을 고찰하여 그 전통이 이러한 조직적 기반에 어떤 방식으로 전승되었는지 알아보았다.

이 글에서는 미군 문서 중에는 1946년 10월항쟁 직후 작성된 미6사단 G-2보고서(HQ, 6th Division, 1946)의 기록을 주로 참고했다. 이 보고서는 1946년 12월 1일 작성된 것으로 항쟁 참가인원, 봉기의 횡수, 지역별 상황, 사상자 수 등을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 영인본으로 발간한 『미군정기 정보자료집: 시민소요·여론조사 보고서(1945.9-1948.6)』(1995) 등 몇 군데에 수록되어 있으나 기존의 학계 연구에 활용되지 않았으며, 특히 그 내용 일부는 커밍스의 글과 정해구의 글에 기록된 것과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이 기록을 선행연구의 기록과 함께 종합하여 활용했다.

그리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서 필자가 조사하고 집필한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희생사건 보고서」 등의 사건 보고서와 진실화해위에서 용역 발주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집단희생 관련 피해자현황용역조사’(이하 피해자현황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구술증언들을 주요자료로 참고했다.¹⁾ 진실화해위 조사는 1946년 10월항쟁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의 실재를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학살의 진상규명에 중점을 두면서 항쟁의 실상, 배경, 의미 등을 상세히 밝히지 못하였으며, 조사범위도 진실화해위에 신청된 사건을 중심으로 대구, 칠곡, 영천, 경주지역 일부만 다뤘다는 한계가 있다. 피해자현황조사

1) 피해자현황조사 중에는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NGO센터(이하 경북대 NGO센터)에서 ‘2008년 피해자현황조사용역사업단 영천시 지역조사팀’을 꾸려 조사한 「피해자현황조사 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와 「구술증언보고서」에 실린 증언들을 주로 참고했다.

도 지역 기초조사를 위한 1차 자료 성격이 강하므로 교차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항쟁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 조사들은 그간 학계에서 하지 못했던 현지조사와 구술조사의 방대한 결과물들을 담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했다.

2. 항쟁의 배경과 원인

1946년 10월항쟁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 여러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²⁾

첫째, 당시 식량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미군정이 식량공출정책을 가혹하게 했던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식량문제에 대하여 미군정청은 군정 초기에는 자유곡가제를 시행하다가 1946년 1월부터 공정가격제를 실

2) 이 절은 필자가 집필한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희생 사건 보고서”(진실화해위 2010)에서 정리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1946년 10월항쟁 발생 직후 좌우합작위원회와 미군 측 대표로 구성된 조미공동소요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사건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1)인사문제: 경찰에 대한 반목, 군정 내의 친일파 침입, 군정에서 통역관의 영향, 일부 조선인 관리의 부정행위, 남조선의 최대복리를 방해하는 선동자, (2)경제문제: 미곡수립계획, 미곡배급계획, 임금 물가 및 인플레이, 전재민의 주택 및 생활문제, 경제회복 지연으로 인한 인민의 실망, (3)정치문제: 조선임시정부 수립의 지연, 적산 관리에 대한 불만, 정당관계, 정부의 이상적 구상(인민의 구상을 만족시키는 정부, 진정한 애국자로 구성된 정부, 확고한 행정방침, 정부로부터 악질분자 숙청); 그리고 당시 미군정 측에서 본 사건 발생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1)군정의 양곡수집과 식량(특히 쌀) 배급이 불충분한 점, (2)경찰의 자의적이고 잔악하고 부적절한 양곡수집 방식, (3)경찰의 전반적인 부패, (4)선동자들이 국민들의 폭력을 유발시키기 위해 위의 사항을 이용한 점, (5)북한에서 파견된 요원들에 의한 소요 기도와 실제 감행, (6)공산주의자들의 학원 침투, (7)수집된 하곡이 분배되지 않았다는 소문, (8)경찰의 방어계획 결여, (9)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적대감, (10)미군정이 대중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음, (11)정부정책을 국민들에게 잘 알리지 못한 점, (12)미군 통치에서 한국인 관리들의 자질 부족, (13)군정 통역관들의 부정행위, (14)한국인들을 성급하게 미국인화하려는 시도, (15)피난민 유입으로 인한 전반적인 실업[“Report of Investigation of Disorders Occurring at Taegu Conducted by Major General Albert E. Brown October 4th, 1946(1946.10.5)”(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193-206]

시했다. 그러나 사정이 호전되지 않자 2월에는 '미곡수집령'을 발표하고 쌀 강제수집과 제한 배급정책을 시행했으며 춘궁기에 하곡까지 수집했다. 게다가 대구·경북지역에는 5월에는 콜레라가 창궐하고 6월에 수해까지 있었다. 대구 주민들은 당국이 방역을 위해 교통을 차단하자 대부분 기아상태가 되었고 경북 주민들도 청송 등 북부 산간지역에는 아사자가 속출했다. 이에 미군정은 양곡 수집을 더 강압적인 방법으로 했는데, 당시 경북은 하곡 수집이 상당히 심하게 시행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해구 1988, 98; 정영진 1990, 250-258).

둘째, 해방 직후부터 대구·경북에는 귀환동포 30만 명이 유입되어 인구가 급증했으나 미군정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음에 따라 1946년 봄부터 자살자가 늘어나고 실업·범죄 등 사회적 불안정성이 증대했던 점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당시 경북의 귀환동포 유입 숫자는 31만2천 명(남한 전체 귀환동포의 14%)으로 1944년~1946년 사이 고령, 청도, 칠곡 등은 인구가 30% 이상, 대구, 달성, 선산, 김천, 영천 등은 20% 이상 증가했다. 1946년 11월 15일 당시 경북의 실업자 수는 약 20만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56.5%에 달했다. 절도 등 치안범죄는 해방 후부터 1946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방 이전보다 6배 정도 증가했다(정해구 1988, 87). 농민들의 경우 토지개혁이 지연되면서 지주소작관계에 대한 갈등이 심해졌는데 특히 영천처럼 논농사비율이 높거나 소작률이 높은 지역은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 나중에 봉기가 격렬하게 일어나기도 했다.

셋째, 한국인들이 일제강점기부터 경찰에 대해 갖고 있었던 증오심도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에 일했던 한국인 관리 대부분을 등용했는데 경상북도와 대구부에는 국과장급 대다수가 일제관료 출신이었다. 경찰의 경우, 일제 말기 경상북도의 경찰관 2,100명 가운데 873명이 한국인이었는데 이 대부분이 미군정에 다시 임용되었다(HQ. USAFIK 1946/04/03). 일제의 유산을 물려받은 경찰은 비민주적인 수사관행과 인권탄압 행위로 주민들의 반발을 샀는데 이것은 양곡 수집과정에서 극명하

게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경찰은 1946년 10월항쟁이 발생했을 때 주요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다.

넷째, 미군정과 사회운동세력의 관계가 변화하고 이에 따라 좌익세력의 운동 전술이 변화한 것도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 미군정은 1946년 5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좌익세력 탄압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좌우합작을 추진하는 이중정책을 펼쳤다. 이에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 내의 강경세력은 7월 말에 미군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신전술’을 채택했고, 여운형을 중심으로 하는 온건세력은 좌우합작노선을 추구했다. 당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직적이고 운동노선 면에서도 유연한 편이었던 대구의 사회운동세력들은 6월에 좌우합작단체인 「대구공동위원회」를 결성하여 미군정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9월에 대구에도 좌익인사 검거가 시작되자 미군정과 좌익세력 사이의 충돌 조짐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1946년 10월항쟁으로 이어졌다.

1946년 10월항쟁은 1946년 초부터 있었던 ‘기민(飢民)시위’와 9월 총파업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다. 대구의 ‘기민시위’는 1946년 3월 11일, 4월 1일, 7월 1일, 8월 19일 등 4차례에 걸쳐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부청이나 도청에 몰려가 식량 배급을 요구하면서 일어났다(정영진 1990, 231-246). 경북에서도 토지개혁 문제로 1946년 한 해 동안 1,552건의 소작쟁의가 있었다(정해구 1988, 81). 그리고 몇몇 지역에서는 식량공출을 둘러싸고 시위와 봉기가 있었다. 1946년 3월에는 의성군과 달성군, 4월에는 경주군, 7월에는 칠곡군(왜관읍)과 경주군에서 미군정의 식량공출을 반대하는 농민 시위와 폭동이 있었다. 또한 여름 이후부터 농민들은 추곡 수집을 피하기 위해 미리 벼를 베는 등의 형식으로 식량공출에 반대했다(대구·경북역사연구회 2001, 127).

한편, 9월총파업이 조선공산당 내 강경세력의 신전술에 영향을 받아 전국노동조합평의회 주도로 일어나자 대구에서는 9월 23일부터 노동조합

들이 파업에 들어가고 9월 27일에는 남조선총파업대구시투쟁위원회(이하 시투)가 결성되었다. 9월총파업에 대구에서는 9월 23일 철도노조원 1천여 명을 선두로 40여 개 노조가, 경북에서는 30여 개 업체 5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정해구 1988, 105). 이와 더불어 9월 29일부터는 부청과 도청으로 몰려가 쌀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도 이어졌다. 미군정은 경찰, 우익 청년단, 대한노총을 동원해 파업본부를 진압하고 노동자 1,200여 명을 검거했다. 9월 30일에는 파업 기간 동안 대치해온 노동자들과 경찰 사이의 대립이 시투 간판 철거 문제로 악화되었으며, 이러한 대립은 10월 1일과 2일에는 대구지역에서 대구모의 봉기와 소요로 나타났다. 1946년 10월 2일 밤부터는 대구지역의 봉기가 경북 일대로 확산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영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항쟁에 다수의 인원이 참여했고 항쟁 강도가 상당히 높았다.

영천항쟁이 이처럼 격렬했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천은 지리적으로 대구와 가까웠으므로 대구의 항쟁이 급속하게 전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해구의 분석에 의하면, 당시 영천과 함께 대구 주변 지역인 달성, 칠곡, 성주, 선산, 군위, 의성 등의 지역에서 항쟁이 최고강도로 일어났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대구의 즉각적인 영향권 하에 있고 대구와의 사이에 산으로 가로막히지 않아 교통이 편리했으므로 대구 항쟁 직후 대구의 선동자들의 바로 진출하였으며 항쟁 참가자들이 경찰보다 정보를 일찍 듣고 선제공격의 이점을 향유할 수 있었다(정해구 1988, 133-138).

둘째, 사회경제적 불안정성도 항쟁의 발생과 강도에 영향을 미쳤다. 영천은 1944~1946년 사이 인구 증가율이 26%에 달할 정도로 해방 직후 귀환동포의 유입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했다(정해구 1988, 94). 그리고 식량문제가 심각했는데도, 미 군정청의 '공출(하곡수집)'이 가혹하여 행정당국과 농민 간의 갈등도 심했다. 1946년 2월에는 군수 이태수가 직접 나서서 미곡수집령을 위반할 경우 엄벌에 처하겠다고 주민들을 위협했고, 군 식량계원은 농민들이 하곡공출에 응하지 않는다고 서

로 뺨을 때리게 하고 보리를 운반하는 차에 태워 유치장에 구금한 뒤 유치장행 운임 10원과 유치장 숙박료 90원도 받았던 일도 있었다(대구시보 1946/08/20; 정해구 1988, 94, 97). 항쟁 후 신문 보도에도 “이곳 당국자들도 하곡공출을 경찰이 적극적으로 한 것이 민요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이 있다(자유신문 1946/12/04). 더구나 일제강점기에도 공출을 혹독하게 했던 바로 그 공무원이 또다시 가혹하게 공출을 해갔으므로, 당국의 공출정책에 대한 불만은 친일 악질관리들과 군수 이태수에 대한 분노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영천 남부지역은 이러한 공출이 심했으나 영천 북부지역에는 실제 리(里) 단위 이하에서는 공출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으며, 이곳에서는 공출 문제보다는 일제강점기부터 누적되어 온 지주소작관계에 대한 불만이 항쟁의 더 큰 원인이라고 했다. 영천은 해방 당시 논농사비율이 50~60%인 전형적인 논농사지역으로 소작률이 60%로 대지주들이 토지를 독점하고 있었으므로 지주소작관계에 대한 갈등이 심했다.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소작농과 머슴 등 하층민들은 경제적으로 양반 지주에게 예속되어 있었으며, 사회적으로도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신분제가 지주소작제라는 토지 소유관계를 통해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어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³⁾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느라 이를 극복할 반봉건혁명의 기회도 없었다. 그러므로 소작농민과 하층민들 사이에는 해방과 동시에 새로운 사회경제적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갈망이 컸으며, 당시 인민위원회 등에서 주장한 ‘토지개혁, 평등사회 실현’이라는 항쟁의

3) 1894년 갑오개혁으로 노비의 매매, 상속은 사라졌지만 노비의 해방은 서서히 진행되었다. 그리고 노비들은 주인으로부터 해방된다 해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주인 주변에 머무르면서 가예(집종), 종속적 소작인, 머슴, 산직(산지기) 등으로 주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어왔다. 그리고 일부 노비들은 다른 마을로 가서 머슴이 되기도 했다. 1910년대 일부 노비들은 성씨를 새로 만들어 호적에 올리기도 했지만 마을 내 주민들은 모두 그들의 출자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차별 대우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다(박찬승 2010, 25-26).

구호는 그들에게 커다란 호소력을 갖는 것이었다.

10·1사건 원인은 지주소작 그거지. 양반들은 돈 있고 땅 있다고 소작 쥐놓고, 조그만 아이들이 할아버지 영감에게도 반말하고 사람을 노비나 개 취급 했어. 가을에 논 한 마지기 탈곡해놓으면 70%를 가져갔어요. 선달쫄 되면 양식이 떨어지고 보릿고개 때 되면 마을의 70%는 (못 먹어서) 통통 부었어요. 그래서 (양반) 집에 가서 곡식을 빌려오면 이자처럼 한 말 먹으면 한 말 쥐야했지. 이렇게 농사지어 다 쥐놓고 사람 대접 못 받아도 배 굶는 사람은 그거라도 떨어질까 봐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게 비감 질렀던 거야.(화북면 함○○ 증언)

특히, 삼만 석 지주라고 하던 이인석은 소작료 징수를 가혹하게 하여 소작인들과의 갈등이 심했으며, 독축 영천지부장이었던 정도영의 집안 역시 지주로서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다. 영천 전역의 많은 증언자들이 친일대지주인 이인석과 정도영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고 공통되게 증언했는데, 항쟁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중소지주들은 공격하지 않은 반면 이인석 등 친일·악덕대지주를 선별 공격한 사례는 각 면마다 뚜렷하게 드러난다(임고면 최○○, 신녕면 김○○, 청통면 김○○ 증언). 이처럼 토지 개혁과 새로운 신분질서 구축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공격 대상이 집중되었던 점도 항쟁의 강도를 높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천항쟁이 다른 지역에 비해 격렬했던 원인으로는 사회경제적 측면 외에도 지역주민에 대한 지역 내 사회운동세력의 영향력을 들 수 있다. 정해구에 의하면, 경북의 군 가운데 안동, 김천, 영일 등 미군정중대가 주둔했던 지역이나 상주와 문경 등 처음부터 좌익이 강하지 못했던 지역은 항쟁강도가 약했다(정해구 1988, 141).

영천에는 당시 미군 제71군정중대가 현 영천고등학교에 주둔했고 우

익세력도 1946년 5월 5일에 대한독립촉성영천청년총연맹이 창설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좌익에 비해 민중의 지지기반이 약했다. 그런데 1946년 초부터 좌익세력이 공출반대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함에 따라 당국은 좌익세력을 심하게 탄압했다. 경북민전 결성 이후 3월에는 인민위원회 간부들이 구금되었고, 10월항쟁 이전 4개월 사이 좌익탄압이 45건이나 발생했으며 좌익인사 145명이 검거되었다(HQ, USAFIK 1946/03/27; 커밍스 1986, 73; 허은 1992, 70).⁴⁾ 항쟁 5일 전인 9월 말에는 좌익계 요인 30명이 검거되기도 했다(자유신문 1946/12/04). 그리고 당시 이미 영천읍에는 서북청년단이 깔려 있었고, 그들이 좌익계 인사들을 폭행하거나 살해하기도 했다(영천읍 박○○ 증언). 이처럼 10월항쟁 당시 영천에는 행정당국 및 우익과 좌익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악화된 관계 때문에 영천항쟁이 더 비타협적으로 전개되었을 수도 있다.

3. 영천항쟁의 양상

영천은 면적 920.3km²이며, 1946년에는 인구가 155,129명으로 1읍, 10면으로 구성된 군이었다. 당시에는 현재의 시 중심지가 영천읍으로, 현재의 시 중심지 일부와 금호읍이 금호면으로 편제되어 있었으며, 현재의 화북면과 화남면은 화북면으로 합쳐져 있었다. 이 글에서는 당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서술했다.

4) 정해구는 이 사실을 근거로 영천항쟁에서는 경북 북부지역에 비해 항쟁 당시 지도자가 부족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무렵 검거된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는지, 이 무렵에 검거되어 실형을 받고 수감되었기 때문에 10월항쟁이 일어났을 때 활동을 할 수 없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다음 절에서 상술하겠지만, 10월항쟁기에 영천에서는 다양한 층의 인사들이 항쟁 주도층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영천항쟁은 1946년 10월 2일 밤부터 시작하여 10월 5일까지 이어졌다. 1차로는 군 소재지인 영천읍에서 10월 3일 새벽에 일어나 며칠간 계속되었으며, 군내의 대부분의 면과 마을에는 10월 3일 아침부터 전파되어 며칠 간 계속되었다.⁵⁾ 영천

〈그림 1〉 영천시 행정구역도 (현재 기준)



항쟁 참가인원은 문서마다 기록된 내용이 다르다.⁶⁾ 그러나 여러 자료를 종합해보면 영천읍의 1차 항쟁 참가인원이 최소 1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각 면의 2차 항쟁과 마을 단위의 3차 항쟁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영천은 대구를 제외한 지역 중에는 항쟁 참가인원이 가장 많은 편에 속하고, 특히 인구 대비 참여율은 가장 높은 편이다. 또한, 영천항쟁은 군의 일부 지역이 아니라 전체 읍과 면에서 빠짐없이 일어났다는 특징이 있다.

5) 대구에서 영천읍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금호면과 대침면의 일부 지역에서는 10월 2일 밤부터 이미 항쟁이 일어났다는 증언이 있다.

6) 영천읍의 1차 항쟁 참가인원은 미 6사단 G-2 보고서에는 2천 명, 내무부치안국의 기록에는 3천 명, “G-2 Weekly Report” 등에 근거한 커밍스의 연구에는 1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HQ, 6th Division 1946; 내무부치안국 1952, 55; 커밍스 1986, 446). 한편, 당시 신문기사에는 “영천군의 전 인구는 2만7천 호 15만5천 명이고 영천읍만 4천7백 호 약 3만 명의 인구인데 이번 항쟁에 동원된 민중 수는 5만 명(당국 추산)이며 영천읍은 거의 전부가 참가했다 한다.”라는 보도가 있다(자유신문 1946/12/04). 그리고 조선중앙연감에는 파업투쟁에 1천2백 명, 군중투쟁에 6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해구는 이 통계를 연 인원을 계산한 듯 하며 다소 과장된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 항쟁 참여자가 주로 청장년층의 남자라는 점과 농촌인구의 분산적 거주형태를 고려할 때, 당시 친일파, 지주, 관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이 항쟁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중앙통신사 1949, 217; 정해구 1988, 142).

1) 영천읍의 항쟁

영천읍 항쟁은 1946년 10월 3일 대구에서 온 선동자 50여 명과 영천군 인민위원회가 결합하여 일어났다. 당시 임장춘(영천군 인민위원장)⁷⁾이 운암 학교에서 연설을 했고 임대식,⁸⁾ 이상문(민청 경북의장),⁹⁾ 박학덕¹⁰⁾ 등이 영천 시장 상인과 영천중학교 학생 등 청년들을 이끌었으며, 영천읍의 주민 대부분이 참여한 가운데 금호면 등 인근 면의 주민들도 합세했다(대창면 김○○ 증언, 화남면 최○○ 증언, 금호면 조○○ 증언, 영천읍 박○○ 증언). 이날 새벽 주민들은 일제히 읍내를 포위하여 통신망을 절단하고 군청, 경찰서, 우체국, 재판소, 등기소, 신한공사출장소 등을 습격하여 불태웠다. 경찰 15명이 살해되었으며 군수 이태수를 포함한 관리들도 살해되었고 한민당의 요인이자 영천의 대지주였던 이인석¹¹⁾의 집도 공격을 받았다. 이후 주민들은 경찰서를 점령하여 무기를 탈취하고 이틀간 읍을 통제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미군 6사단 G-2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
- 7) 영천읍 화룡동의 임장춘(당시 40대)은 천석꾼 지주 집안 출신으로 1934년에서 1940년 사이 동아일보 영천지국장을 하면서 일제강점기부터 신간회활동 등 항일운동을 했고 지역 문화에 술계에도 이름을 떨쳤던 인물이다. 임장춘의 일제강점기 활동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기사 등 참조 (동아일보 1934/02/01; 동아일보 1940/02/24; 김진화 1979, 150-152; 정해구 1988, 43). 증언에 의하면 임장춘은 10월항쟁 직후 사살되었다고 하나 정확한 피살시기와 장소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진실화해위 2009a, 59).
 - 8) 임장춘의 동생인 임대식(1917)은 1950년 국민보도연맹 영천군연맹 간사장을 맡았고 6.25 발발 직후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살해되었다(진실화해위 2009a, 59).
 - 9) 영천읍 과전동 출신의 이상문(1916)은 영천경찰서 자료에 “1946.9. 민청에 가입 경북연맹 의장단으로 좌익선전에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10.1영남폭동사건에 주동적 역할을 했고 1961.1월경 사회당 경남도당 당무위원으로 동당 운영자금 3만 원 자진 제공 2대악법 반대에 선봉적 역할을 담당한 자”로 기록되어 있다(영천경찰서 1979).
 - 10) 영천읍 괴현동 출신의 박학덕은 일제강점기에 항일운동을 하여 옥살이를 한 경력이 있는 인물로 마을 젊은이들을 규합하여 연극과 노래, 교육 활동을 했다. 그는 1948년 1월에 10월항쟁 관련자라는 이유로 사살되었다(진실화해위 2010, 92).
 - 11) 이인석은 이환(자유당 청년부장 및 국회의원, 고려대학교 이사장 등을 역임)과 이호(제5공화국 초기의 입법의회 의장 역임) 형제의 아버지로 일제강점기에 치부를 하여 영천 전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10월 3일 아침 군중 2,000명이 경찰서를 습격했다. 경찰에게는 탄창 5발만 있었고 군수품실의 열쇠를 가진 경관은 습격 초기에 살해되었다. 군중들이 경찰을 제압하면서 경찰서장과 경관 15명이 살해되었고, 46명이 실종되었는데 이 중 최소 40명은 군중에게 생포되었고 소총 20정과 권총 1정도 빼졌다. 군중 측은 15명이 살해되었고 다수가 부상당했다. 그들은 경찰서, 우체국, 군청, 신한공사출장소, 재판소 등 대여섯 블록의 건물 최소 300체에 불을 질렀다. 군수와 최소 19명의 관리들이 살해되거나 부상당했다. 10월 4일 아침에도 몇몇 건물들이 방화되었고 시신이 거리에 있었다. 군중들은 이틀간 읍을 통제하다가 10월 4일 15:00 미군 제1대대의 순찰차 8대가 도착하기 바로 직전인 14:30경 이 지역을 떠났다. (HQ, 6th Division 1946)

한편 자유신문 1946년 12월 4일자에는 10월 3일 영천읍의 상황에 대해, “영천은 약 5만 명의 봉기가 있었으며 파궤된 피해액만도 10억 원을 넘는다고 한다. 동 지방에서는 사건이 이어나기 5일 전에 좌익계요인 30명을 검속하였으며 사건당일인 10월 3일에는 대구에서 이미 사건이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비상소집경계를 하고 있었고 군중이 물려나온다는 정보도 받았으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중과부적으로 경찰서는 점령당해야 소실당하고 16명의 경관이 죽고 35명의 부상자를 냈으며 군수와 면장 2명 서기 1명도 피살당했는데 민간 측도 약 20명이 사망했다고 한다”라고 보도되어 있다(자유신문 1946/12/04). 이 기록은 위의 기록과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은 일치하며 운집한 군중의 수와 피해자의 수에 대한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영천군수 살해 혐의로 구속된 주민 전범대의 군정재판 기록에는, “10월 3일 새벽 수백 명의 군중이 군수 이태수의 집으로 몰려갔다. 이때 배병수 등이 군수를 피신시키기 위해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군중들이 수백 미터가량 뒤쫓아 가서 군수를 붙잡아 몽둥이로 머리와 어깨를 내

리쳤고 이에 군수가 현장에서 사망했다.”라는 기록이 있다.¹²⁾

2) 각 면의 항쟁

영천항쟁은 각 면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면 단위에서 발생한 항쟁에 대해서는 문헌자료의 기록이 별로 많지 않다. 항쟁과 관련된 미군정 측의 재판 기록은 영천읍 항쟁 참가자로 판단되는 전범대에 관한 기록 외에는 공개되지 않았다.¹³⁾ 당시 신문에는 미군정 특별재판에서 영천군수 살해 혐의로 박봉영, 김종영, 최상호(영천읍 항쟁 참가자로 추정)가 사형선고를 받았고 북안면의 성재모 외 1인을 살해한 혐의로 김양성, 김성필, 김춘생, 신범이, 정원택, 이원만(북안면 항쟁 참가자로 추정)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보도되어 있으나, 이들의 인적 사항이나 자세한 기소경위는 기사에 적혀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기록을 통해 항쟁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는 힘들다(영남일보 1947/03/11; 대구시보 1947/03/15; 대구시보 1947/03/17; 대구시보 1947/03/28; 대구시보 1947/04/06; 정해구 1988, 160).

몇몇 문서에는 “군중들이 고경, 신녕, 청통, 화산, 임고, 자양 등 6개 면의 면사무소를 방화했고 대창, 북안(임포), 고경, 청통, 자천, 화남(삼창), 자양, 보현 등 지서 9군데를 파괴했다”라는 기록이 있고(내무부치안국 1952, 55), 미군 6사단 G-2 보고서에 “신녕에서 군중들이 지서를 휩쓸어 경관 3~4명을 죽였고 그들의 집을 부숴다”라는 기록과, “(북안) 임포동에서 10월 4일 군중들이 지서를 휩쓸어 경관 3명을 생포하여 가뒀다. 10월 4

12) 1946년 10월항쟁과 관련된 미군정의 재판 기록 중 유일하게 공개된 전범대 재판기록은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미군정기 정보자료집: 질레트 보고서, 전범대 재판기록』(1996)에 영인본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전범대는 1946년 10월 5일에 검거되었고 1947년 3월 4일에 기소되었으며 3월 24일에 재판이 있었다. 재판 결과 살인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폭동 참가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전현수 2006, 58-59).

13) 전범대의 재판기록에 관해서는 위의 각주 12 참조.

일 12시에 미군 8명이 순찰차로 도착하여 군중들을 해산시키고 경찰을 구출했다”는 기록이 있다(HQ, 6th Division, 1946).

그러므로 면 지역의 항쟁 상황은 상당 부분을 구술증언에 의존하여 파악했다. 화북면의 사례는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므로 화북면을 제외한 각 면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영천 각 면의 항쟁 (화북면 제외)

구분	10월항쟁 이전 상황	10월항쟁 당시 상황
<p>금호면 (금호면 조○○, 대창면 김○○, 화남면 최○○ 증언; 경북대 NGO센터 2009, 238)</p>	<p>안재기¹⁴⁾를 필두로 한 도남동 안씨 일족을 중심으로 인민위원회 세력이 강했고 청년동맹도 조직원이 6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세력이 형성하고 있었다.</p>	<p>지역 주민들은 10월 2일 밤 면소재지인 교대리로 집결하여 면사무소와 금호지서에 불을 지르고 면장인 권상락의 집도 불 질렀다. 신대리에서는 일제시기 금호면 농상계 직원으로 근무하며 가혹한 공출 수령으로 민심을 잃은 구장 이영우를 살해했다. 삼호리 등 영천읍과 인접한 마을에서는 전 주민이 영천읍으로 나가서 영천읍 봉기에 참가했다는 증언도 있다.</p>
<p>대창면 (대창면 박○○, 김○○, 최○○ 증언; 경북대 NGO센터 2009, 42)</p>	<p>한석현의 주도의 좌익치안대가 면의 치안과 행정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1945년 겨울 면사무소와 친일관리였던 면장 가족을 습격한 일이 있었다.</p>	<p>지역 주민들은 10월 2일 밤, 30여 명씩 몰려 다니며 면사무소, 지서, 공출 곡식 창고에 불을 지르고 직천리 지주이자 영천의 대표적인 우익인사였던 노한용 등 친일전력이 있는 몇몇 인사들의 집을 부수거나 불을 질렀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10월항쟁 이전에 이미 친일우익인사들을 응징했으므로, 10월항쟁 시에는 다른 면에 비해 우익인사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p>
<p>북안면 (북안면 김○○, 정○○, 손○○, 장○○ 증언; 경북대 NGO센터 2009, 263)</p>	<p>지주와 부농이 토지를 독점하여 주민들의 생활이 비참했고, 면장 서형석은 악덕지주로서 소작농들과 갈등이 심했다. 좌익선동대와 야합이 있었다.</p>	<p>유인만(면 인민위원장), 신범이,¹⁵⁾ 김양선, 김수흥(대구여중 교사)등의 주도하에 주민들이 일어나 면사무소에 불을 질렀고 도주했던 면장 서형석을 경주 서면의 정덤못 부근에서 붙잡아 칠포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주민들은 서형석의 집뿐 아니라 부면장의 집도 불 질렀으며, 친일파로 지목된 성재모(면 서기) 등도 살해하고, 친일파 및 우익인사의 집을 불태우거나 파괴했다.</p>

14) 금호면 도남동의 안재기는 광주 안씨 일가의 종손이자 지주(200마지기 소유)로서 와세다대학을 나와 영천에서 조양인쇄소를 경영했으며, 10월항쟁 전에 정시명의 뒤를 이어 영천군 인민위원장직을 맡은 경력이 있다(금호면 안○○, 안○○ 증언).

<p>고경면 (고경면 이○○, 정○○, 최○○ 증언; 경북대 NGO센터 2009, 216-217)</p>	<p>영천읍에 인접하여 영천읍으로부터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조희원, 이희학, 백동용 등이 주도적 인사였다.</p>	<p>항쟁이 면의 동부지역(해선리 중심)과 서부지역(단포리 중심)으로 나뉘어 전개되었다. 동부 고경면에서는 주민들이 해선리 고촌국민학교로 모여 고경지서를 점령하고 경찰을 구금했다가 석방했고 우익인사 인상식을 폭행하여 죽였다. 단포지서가 있던 서부 고경면에서는 주민들이 지서에 불을 지르고 지서장을 살해했으며, 일제강점기 구장으로 친일인사로 지목된 이성기와 이승기 형제의 집에 불을 질렀다. 용전리 등 일부 마을에서는 외지인들의 영향 없이 마을 청년들이 나서서 구장과 친일인사의 집을 부수었다.</p>
<p>임고면 (임고면 정○○, 이○○, 이○○, 최○○ 증언; 경북대 NGO센터 2009, 39-41)</p>	<p>10월항쟁 이전에 우익 국민회가 조직되어 있었고, 좌익 쪽 청년조직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증언에 의하면, 김영만과 김종철이 이끌던 문화선전대가 임고국민학교에서 정치선동극을 공연한 적이 있었다.</p>	<p>10월 3일 영천읍에서 선동자(영천중학교 학생 포함)이 트럭을 타고 오자, 면소재지에서 50리 떨어진 벽촌인 수성리 주민들까지 거의 모든 마을 주민들이 면소재지인 양항리로 나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들은 일제강점기 면장이었던 이병갑의 집과 지서에 불을 질렀으나 면사무소 방화는 면 인민위원장 정환식이 만류하여 중지했으며 당시 면장 이근호도 평판이 나쁘지 않아 공격하지 않았다. 면사무소를 점령한 대표들은 회의를 열어 공격계획을 세운 뒤 일제강점기에 면장계를 담당하며 공출에 앞장섰던 면서기 김규익을 살해하고 정만용(국민회) 등 친일인사의 집도 파괴했다. 그날 영천읍 선동자들이 돌아가는 과정에 다시 주민들과 합세하여 대지주 이인석의 정자(매호리)에 불을 질렀다.</p>
<p>자양면 (자유신문 1946/12/04; 내무부치안국 1952, 55; 자양면 이○○ 증언; 경북대 NGO센터 2009.)</p>	<p>항일의병운동의 영향이 강한 곳으로 해방 직후부터 좌익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항일운동을 하던 정구식, 이재관 등이 지도자로 있었다.</p>	<p>10월 3일 또는 4일 영천읍에서 선동자들이 트럭을 타고 들어오자 지역 지도자들이 나서서 깃발을 흔들며 주민들을 모았고, 이에 주민들이 합세했다. 주민 1천 명이 참가했는데, 당시 자양면의 호수가 2천 호 정도였으므로, 두 집에서 한 명 정도가 참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면사무소와 지서에 불을 지르고 지주 정형식과 경찰 1명을 살해했다. 일제강점기 면장이었던 정만식의 집도 불을 질렀으나 정만식은 피신하여 목숨을 건졌다.</p>

15) 신범이는 미군정 특별재판에서 성재모 살해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영남일보 1947/03/11).

<p>신녕면 (신녕면 정○○ 증언; 경북대 NGO센터, 2009: 35-36)</p>	<p>영천 서북부지역의 중심지로 중앙선과 28번 국도가 통과하는 지역이다. 논농사 비율이 높고 지주소작관계의 갈등이 심했던 지역으로 항쟁이 가장 폭력적으로 일어났다. 10월항쟁 이전에 마을마다 마을 소임이나 하층민으로 구성된 좌익 청년단이 있었다.</p>	<p>10월 3일 영천읍 선동자들(영천시장 어물전 상인 포함)이 트럭을 타고 들어와 김갑수, 이만득, 김명득 등이 지도하는 신녕면의 좌익 청년단원들과 함께 지서, 면사무소, 우체국을 점령하고 통신문을 절단한 뒤, 경찰 5명의 무기를 압수하고 그들을 지서 유치장에 감금했다. 각 마을의 소임 등 청년단원들은 주민들에게 삼이나 쇠스랑을 들고 면 소재지의 공회당(신녕성당)으로 모이라고 외치고 다녔다. 이에 24개 리의 거의 모든 마을 주민들이 호응하여 몰려들어 공회당 앞 거리는 수백 명~천 명 정도의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주민들은 면사무소, 지서, 기독교 교회, 국민학교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우체국 앞에 임시지서를 만들어 경찰과 우익인사 50명을 감금하고 취조하고 약식 인민재판을 한 뒤 목사 손해조와 면 서기 나산도를 포함한 우익인사 5명을 살해했다.</p>
<p>청통면 (내무부치안국 1952, 55; 청통면 김○○, 이○○ 증언; 경북대 NGO센터 2009, 37)</p>	<p>지주소작관계의 갈등이 심했던 곳으로 해방 직후부터 좌익이 절대적으로 우세했다.</p>	<p>10월 4일경 신녕면에서 30여 명의 선동자가 몰려오자 금도현(면 서기)의 주도로 각 마을의 주민 다수가 합세했다. 그들은 면장이중문을 지서에 감금한 뒤 불 태워 죽였으며, 마을 유지인 박동성, 일제강점기 수리조합장이었던 박이수 부자도 살해했다. 각 마을의 우익인사 여러 명의 집도 습격하여 가재도구들을 불태우고 친일파와 지주들을 면사무소에 붙잡아서 구타했다.</p>
<p>화산면 (화산면 권○○, 권○○ 증언, 청통면 김○○ 증언; 경북대 NGO센터 2009, 37)</p>	<p>안동 권씨 집성촌이 많은 이 지역에는 좌우의 유명인사가운데 일가친척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많았다. 김무용, 권대선 등 유명한 좌익인사가 있었으나 항쟁 당시에는 지도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p>	<p>10월 4일경 영천읍에서 '고기장사 하던 상인'들이 트럭을 타고 들어온 뒤 암거리 청년 등 30명가량이 면 일대를 돌면서 지서와 지주들의 집을 습격하고 불을 질렀다. 그러나 다른 면에 비해 봉기가 격렬하지 않았으며, 지서장이었던 권석환은 항쟁주도 세력이 많은 암거리와 가상리의 권씨 집성촌 출신으로 피신하여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 또한, 당시 면장이었던 권장덕도 피신하여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가상리에 있던 그의 정자에 대창을 든 20~30명의 주민이 몰려가 불을 질렀다.</p>

위의 표를 보면 남부의 금호와 대창은 항쟁이 좀 일찍 일어났고 북부 외곽의 면들은 항쟁이 더 늦게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서북부의 신녕과 청통의 항쟁이 가장 폭력적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

분의 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 항쟁의 형태는 유사했다. 화북면의 사례를 통해 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화북면에는 1946년 10월항쟁 이전에 일제강점기 면장이었던 정재섭을 위원장으로 하는 면 인민위원회가 있었고, 농민조합이 있었다. 이 지역의 10월항쟁은 10월 3일 아침 면 소재지이자 600여 호의 주민이 거주하던 자천리의 장시에 영천읍의 선동자들(주로 영천시장의 어물전 상인들이)이 트럭을 타고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 영천읍의 선동자들은 장터에서 토지개혁 등의 구호를 외치며 봉기를 선동했고, 이에 면 인민위원장 정재섭과 농민 구홍서, 김치형 등이 주도자로 나섰다. 그들은 평소 주막에 모여 마을의 여론을 주도하던 청장년들과 소작농들을 규합했는데, 장터에 온 다른 마을의 주민들도 대거 봉기에 합세했다. 그들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만세를 부르면서 팽과리를 치며 장터에서 시위를 한 뒤, 몽둥이를 들고 30명씩 무리를 지어 면 일대를 순회했다. 증언자들이 ‘몽둥이패’ 또는 ‘작대기패’라고 불렀던 그들은 화북에서는 면사무소와 지서는 습격하지 않았으나, 지주이자 영천에서 유명한 우익인사인 정도영¹⁶⁾의 집에 불을 지르고 지서 경찰 2명과 황계리 최규태의 부 등 우익 여러 명을 살해했으며, 악덕지주로 지목한 사람들과 관료들을 지서 창고에 구금했다. 이후 항쟁주도세력들은 며칠간 마을을 장악하고 통치했다(화북면 함○○, 이○○, 오○○, 김○○ 증언). 다음은 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언이다.

병술년 음력 9월 9일 아침에 천지가 진동하면서 거리에 만세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와 아우성 소리, 비명 소리가 났어. 그 사람들은 이조 때부터 있었던 상하 계급사회와 왜놈 압박을 못 이겨 일어났지. 정진사 집

16) 화북면 자천리 출신 정도영은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소속으로 1948년 제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그의 당질 정기환은 국민회 청년단장으로서 우익 청년조직을 지도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정씨 일문은 당시 영천 우익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불타고, 사람 꺼내 패는 소리가 나자 붙들려 갈까봐 산으로 피신한 사람도 있고, 미처 피신하지 못한 사람은 자천창고(현재의 물류창고)에 끌려갔어. 거기에서 지서 경찰 2명과 황계리 최규태의 아버지가 불태워져 죽었다. 그리고 여러 명이 죽었고, 맞아 죽을 지경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은 부지기수야.(화북면 김○○ 증언)

그때는 총이나 있다. 몽둥이를 들고 양반이랍시고 행세하던 것들은 패고, 순사들은 때리고 죽이고. 양반 기와집 좋은 것은 불 사지르고, 죽고살고 회한하지 뭐. 1주일간 저거 세상이라. (항쟁에 나섰던) 함병태 아버지, 전영태 아버지는 다 평소에 술이 좋아서 주막에 모여 놀던 사람들인데 영천(읍) 사람들이 와서 몽둥이 쥐고 나서라 하니 나섰어. 그때는 무슨 주의가 없었어요. 일하는 사람은 모두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라 남로당이 뭔지도 몰랐지. 선동자가 ‘양반 없애고 땅 준다, 이북처럼 논밭 부치던 것 네 것 된다’고 선전하니, 그 말에 어릴 때부터 고통 받고 대대로 맺혀 있던 한이 고마 풀렸는 기라. 그래서 내 세상인가 싶어 천지도 모르고 폭동이 일어난 기라.(화북면 함○○ 증언)

자천리의 봉기는 화북면 일대를 휩쓸고 난 뒤, 면의 또 다른 중심지이자 삼창지서가 있던 삼창리(현 화남면 소재지)로 연결되었다. 현 화남면의 증언자들은, 당시 화북 자천리에서 머리띠를 두른 사람들이 트럭을 타고 마을에 들어와 주민들을 소집한 뒤 토지개혁과 평등세상 등을 주제로 연설을 하고 남의집살이를 하던 사람이나 과거 종 신분에서 있던 소작민 등 하층민들의 이름을 호명하니, 과거에 ‘종의 신분이던 사람들’이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나중에 죽을 줄도 모르고’ 앞장서 나가서 봉기를 일으켰다고 증언했다. 그 후 항쟁주도자들은 삼창지서를 습격하면서 내부의 서류와 비품들을 꺼내어 지서 앞에서 불태우고, 일제강점기 동장이었던 친일인사 양주언과 지역유지 몇몇의 집을 습격한 뒤 며칠 간 마을을 점령하

고 통치했다(화남면 양○○, 곽○, 조○○, 이○○, 최○○, 박○○ 증언). 다음은 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언이다.

폭동 날 때가 가을이잖아. 화북면 소재지 사람 수십 명이 ‘작대기패’가 되어 넘어와 사망으로 퍼지더라. (주동자는) 자천 화북 사람인데 머리카락 두르고 ‘내일은 좌익이 성공한다’ 그러대.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잘 사는 사람들 땅 빼앗아 똑같이 나눠 준다’ 하니 남의 집 머슴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이 훌쩍 넘어가 천지도 모르고 따라 가는 기라. 여기는 큰 부자도 없고 유세하는 사람들도 심하게 없었으니,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고. 부잣집에 가서 겁만 주고 (물건을) 빼앗지는 않았고. 한 3~4일 그러다가 미군부대 온다 하니 도망가기 바빴지.(화남면 최○○ 증언)

음력 9월 9일 중짓날, 면 소재지인 자천리 장에 갔던 사람이 ‘자천 숲에서 만세 부르고, 정도영씨 부잣집 불 지르고 야단이다, 시장이 안 되더라’ 하면서 돌아오는 기라.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점심 먹고 소 먹이러 나가니 와장창 야단이라. 양철통 두드리는 소리, 온갖 소리가 나니 송아지가 놀래가 뛰어가버렸는 기라. 그래서 송아지를 붙잡아 오면서 보니, 이슬비가 내리고 콩이 누렇게 익은 들판에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하얗게 덮였더라. …(중략)… 우리 앞집에 왜정시대 구장 하면서 대동아전쟁 때 공출로 인심을 잃은 친척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집에 몰려와 장독과 가재도구를 부셨지. 그리고 청년들이 (마을을) 점령해서 저거 정치하는 거라.(화남면 박○○ 증언)

요컨대, 화북면의 항쟁은 영천읍 항쟁이 10월 2일 밤부터 대구선동자그룹과 영천군 인민위원회의 주도로 1만 명가량이 참가하여 일어난 뒤, 뒤이어 10월 3일 아침부터 수백~1천 명의 단위로 일어났다. 이때 영천시장상인과 영천중학교 학생들이 포함된 영천읍의 선동자그룹이 면 소재지의

장터로 들어와 면 인민위원회 및 농민조합원들과 함께 항쟁을 주도했고, 이에 현지 농민이 합세했다. 그리고 면 단위의 선동자들이 30명 정도씩 무리를 지어 여러 마을을 순회하면서 주민들과 합세했다.

그리고 다른 면에서도 대부분, 처음에는 영천읍의 선동자그룹이 면 소재지로 트럭을 타고 들어와 현지 인민위원회 및 주민들과 합세하면서 항쟁 주도세력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항쟁주도세력은, 우선 통신망을 절단한 뒤 지서를 장악하면서 경찰의 무장을 해제하고 면사무소를 장악했다. 그 다음에는, 청장년층으로 구성된 선봉대들이 30명씩 무리를 지어 머리띠를 두르고 몽둥이와 같은 무기를 들고 면 일대를 돌면서 주요 공격대상을 살해하거나 그들의 집을 공격했으며, 공격대상으로 지목한 인사들을 창고에 감금한 뒤 약식 인민재판의 형식을 거쳐 처벌하기도 했다. 공격을 할 때는 모든 관리와 지주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하에 친일행위를 한 관리들이나 소작료 문제 등으로 주민의 원성을 산 악덕지주들을 주민의 평판에 따라 선별하여 공격했다.

4. 영천항쟁의 특징

1) 항쟁의 전파경로

영천항쟁은 대체로 대구 → 군 단위 → 면 단위 → 마을 단위로 순차적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전파경로는 대구에서 영천읍으로 연결되는 4번 국도를 따라 이어진 뒤, 영천읍에서 화북면으로 연결되는 35번 국도와 영천읍에서 신녕면으로 연결되는 28번 국도를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항쟁은 군 중심부의 평지지역에서 시작되어 주변부 산간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 2〉 영천항쟁의 전파경로



이는 1차적으로는 대구의 영향과 관련이 있었다. 1946년 10월항쟁 당시 경북에서 대구 선동자들이 진출한 군은 영천 외에도 달성, 고령, 성주, 칠곡, 군위, 의성, 경산이 있는데 이 군들은 대체로 군중들이 경찰에게 선제공격을 하여 항쟁이 더 신속하고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정해구 1988, 133).

그러나 대구의 영향을 받은 지역들도 지역마다 항쟁이 전개된 양상이 달랐다. 특히 영천항쟁은 군 소재지가 항쟁의 중심이 된 뒤, 면 단위와 마을 단위로 항쟁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광범위한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영천처럼 대구와 인접해 있으면서 영천과 같은 시간대에 항쟁이 일어난 칠곡과 비교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칠곡에서는 면 단위에서 먼저 항쟁이 일어나고 그 세를 모아 군 소재지의 경찰서를 장악했다. 즉, 10월 2일 오후 9시경 대구에서 칠곡군 소재지로 가는 길목에 있는 지천면에 대구선동자그룹 40여 명이 와서 신동지서와 지천지서를 습격했다. 비슷한 시각에 군 소재지 북쪽의 약목면에서는 이곳 출신 박명희(당시 20살가량, 계성중학교 학생)의 주도로 주민 500여 명이 약목지서를 습격하여 3명의 경찰을 살해했다.¹⁷⁾ 그 후 그들은 김천에서 오는 기차를 가로챘고 왜관읍 북쪽의 교량 2개를 폭파했으며, 인근의 북삼, 인동, 석적 일대를 돌면서 그곳의 주민들과 함께 지서와 경찰·관리·부호의 가옥

17) 칠곡군 약목면은 당시 소작인들이 많이 거주하여 칠곡군 안에서도 지주소작관계의 갈등이 심하던 곳이었다. 약목면 출신 박명희는 계성중학교 학생으로 약목면에서 10월항쟁을 주도했으며, 사건 직후 검거되어 미군정특별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인천형무소 수감 중 사망했다(칠곡군 배○○, 이○○ 증언; 박명희의 사형선고 사실은 대구시보 1947/6/13 참조).

을 파괴했다. 이후 2,000여 명으로 불어난 군중들은 3일 오전 6시경 왜관읍에 이르러 시위행진을 하면서 칠곡경찰서를 공격하고 경찰서장 등 6명의 경찰을 살해했다. 그들은 경찰서를 점거한 뒤 최팔용을 자신들의 경찰서장으로 뽑고 군의 치안을 장악했다(HQ, 6th Division 1946; 정해구 1988, 117-118; 왜관읍 상황은 이○○, 김○○, 장○○ 증언; 약목면 상황은 배○○, 이○○ 증언). 즉, 칠곡에서는 군 인민위원회보다는 박명회가 이끈 약목면 주민들이 항쟁의 1차적 중심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영천은 10월 3일 오전 1시경 군 인민위원회가 대구선동자그룹과 합세하여 군 중심지의 권력부터 먼저 장악한 뒤, 그날 아침부터 면단위와 마을 단위로 항쟁을 전파했으므로 군 단위의 주도층이 항쟁의 1차적 중심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보면 영천항쟁이 비조직적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영천의 군 중심부에 외부의 영향을 신속하게 수용하여 면 단위로 전파할 수 있는 항쟁주도층이 존재했으며 그들의 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조직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조직성을 발휘한 항쟁주도세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의 조직력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을까?

2) 항쟁 주도층의 구성

영천항쟁은 군 단위와 면 단위의 인민위원회, 농민조합, 민주청년동맹(이하 민청) 등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영천에는 경상북도 인민위원회가 결성되던 1945년 10월 18일 이전에 군 인민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었다. 당시 군 인민위원회는 군청을 장악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주민들에게 영향을 강하게 미치고 있었다(커밍스 1986, 409). 그리고 1946년 5월 이전에 이미 몇몇 면에는 농민조합과 민청이 있었고 좌익 치안대가 지역의 치안을 장악하고 경찰력을 압도한 곳도 있었다.

영천군 인민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은 정시명(본명 정용식)이었다. 그런

데 당시 영천군 인민위원회는 당국의 탄압이 잦았고 협의체적 성격이 강하여 군의 대표적 명망가들이 위원장직을 번갈아가면서 맡았다고 하며, 정용식 외에도 안재기와 임장춘이 해방 후부터 10월항쟁기까지 영천군의 인민위원장을 했다고 한다(정시명 유족 정○○, 금호면 안○○, 대창면 김○○ 증언). 이들 외에 당시 군 단위급 이상으로 활약했던 지도인사로는 김은한(전 국민위원회대표자대회 대표), 김석인, 이광식, 김갑수(셋 다 전국농민연합회결성대회 대표로 출석), 조희립(본명 조수만: 경상북도 인민위원회 선전부장), 황보집(이명 황보육: 조선공산당 경북도당 선전부장), 이상문(민청 경북연맹의장단) 등이 있었다(영천경찰서 1979; 정해구 1988, 69; 허중 2004, 152). 또한, 여성으로는 안□□이 오빠인 안달수¹⁸⁾의 영향을 받아 부녀계몽운동을 하며 여맹위원장으로 활동했다(영천읍 박○○ 증언).

1946년 10월항쟁 때에는 위의 인사들 중 임장춘이 군 인민위원장으로 서 영천읍의 항쟁을 주도했으며, 김갑수는 신녕면의 항쟁을 주도했다. 또한 이상문과 임장춘의 동생 임대식은 청년조직을 맡아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안□□은 여성조직을 맡아 역시 주도적 역할을 했다(대창면 김○○, 화남면 최○○, 영천읍 박○○, 신녕면 주민들의 증언).¹⁹⁾

1946년 10월 2일 대구에서는 조공 대구시당 산하 ‘특별대책위원회’가 항쟁최고기구 역할을 하면서 좌익세력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규모 시위를 하고자 했으며, 민청 소속의 청년들과 학생들이 대구경찰서 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허중 2004, 181). 그런데 10월 3일 오전 1시부터 1만 명

18) 청도군 운문면 출신의 안달수는 1945년 11월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에 청도군 대표로 출석한 바 있다(정해구 1988, 69). 그는 청도군의 10월항쟁을 주도했으며, 이후 도피하여 남로당 충북지구도책으로 활동하다가 1949년경 군경에게 사살되었다(청도경찰서 1972; 진실화해위 2008a, 789).

19) 군 단위 지도자급 인사인 정용식, 김석인, 김은한, 이광식, 황보집, 조희립은 항쟁 당시 행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항쟁 발생 5일 전 영천경찰서에서 좌익계 요인 30명을 검속했다고 하므로(자유신문 1946/12/04), 그들이 이 중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다.

가량의 대규모 군중이 집결하여 시작된 영천읍의 항쟁은 그 직전부터 대구와 연락이 되어 미리 준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신문보도에 의하면 영천항쟁의 선동 연설 가운데 “38선은 이제야 철폐되었다.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우리 동지들은 굶주린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남조선으로 들어왔다. 자아-! 굶주린 동포들은 일어서라”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대구시보 1946/10/13; 정해구 1988, 123), 이는 그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인민위원회 조직이 조공 조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인민위원회가 조공의 산하기구라고 보기도 어렵다. 인민위원회는 해방 직후 각 지역에서 만들어진 건국준비위원회 지부를 바탕으로 결성된 것으로 다양한 인사가 참여했으며, 지역에 따라 좌우합작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당 중심의 성격이 강한 서울이나 도시지역 조직들에 비해, 지방 농촌의 조직들은 좀 더 다양한 인사들을 통합하여 조직되었다(정해구 1988, 113). 더구나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영천항쟁에는 위의 조직들에 속한 사람 외에도 훨씬 더 다양한 세력들이 항쟁이 참여하여 항쟁을 주도했다. 그러므로 영천항쟁의 주도세력을 특정 조직 소속 인물로 한정짓지 않고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증언을 통해 드러나는 영천항쟁의 주도세력은 크게 몇 갈래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 앞서 언급한 군 단위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있다. 그들은 일제강점기에 대학 교육을 받거나 일본 유학을 갔다 온 지식인들로서, 대구를 오가며 항일운동을 하면서 군 단위 이상의 활동반경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지역에서 지주계층으로 경제적 기반을 갖고 있었고 계몽적 활동을 했던 명망가들로서 친족공동체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다.

둘째, 읍·면 단위나 마을 단위 지도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있다. 이 중에는 일제강점기에 신학문을 배운 지식인, 한학자, 지역유지 등 마을의 여론을 주도하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면장이나 구장 중에는 일제강점기에 친일행위를 했던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 해방 후에 면이나 마을 단위의 인민위원장으로 추대된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작은 마을에서는 국민학교 이상을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마을 지도자이자 계몽적 지식인으로 활동했다.

이 두 부류의 인사들은 어느 정도 재산을 보유한 지주 또는 자영농 이상의 층으로 항쟁 당시 연령대도 대부분 40-60대로 다소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친일세력이나 행정당국의 정책을 반대하는 세력이었다는 공통점을 제외하면, 이념적으로 통일되어 있거나 조직적으로 통합된 단위에 묶여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앞에서 설명하였던 두 부류와 달리 행동세력으로서 선봉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다. 20-40대 청장년층으로 군 단위에서는 영천시장 상인과 영천중학교 학생들이 이런 역할을 했고, 면과 마을 단위에서는 소작농민이나 하층민(남의집살이하던 머슴, 마을 소임) 가운데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많았다.

이처럼 항쟁 주도세력에는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결합했다. 특히 지주 소작관계의 갈등이 항쟁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고, 항쟁을 할 때 토지개혁과 함께 기존의 신분·계급관계를 타파하는 것이 주요 구호로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주와 소작인, 학생과 머슴 등 다양한 위치에 있던 인사들이 항쟁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은 영천항쟁이 특정한 계층·계급의 틀을 넘은 전선(front)과 같은 성격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선 안에서 역할을 분담할 때에는 전자는 지도층이 되고 후자는 행동대 역할을 했다는 점을 보면, 그 내부에도 신분·계급, 학력, 세대의 측면에서 전통적 위계에 의한 차별의 질서가 반영되어 있었다.

3) 항쟁의 조직적 기반

영천항쟁에는 군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결합했는데 이들이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이념적 측

면만이 아니었다. 증언들을 살펴보면, 당시 주막과 장시는 여론 형성과 항쟁의 조직화를 위한 공론장이 되었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여론 전파의 통로가 되었다. 그리고 친족공동체와 마을공동체 안의 자치적 관계들도 일상적 조직화를 위한 기반이 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하층민 조직: 계급적 동질성에 의한 결합

영천항쟁의 선봉대는 청장년층으로 소작농민이나 하층민(남의집살이하던 머슴, 마을 소임), 영천시장 상인, 학생 등이 담당했다. 이들은 30명 정도 무리를 지어 트럭을 타거나 도보로 외곽의 마을을 다니면서 항쟁을 전파하고, 현지 주민들을 소집하여 직접 행동에 나서는 역할을 했고, 그 지역의 권력을 장악한 후에는 친일·우익인사들이 취조하고 약식 재판을 한 뒤 ‘처형’하는 역할까지 했다. 신녕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취조, 재판, 처형을 할 때에도 역할분담이 있어서 국민학교 이상을 나온 지식인들은 취조와 선고를 담당하고 머슴 등 하층민들은 집행자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증언자들은, 항쟁 이전 영천에는 마을마다 마을 소임이나 머슴들로 구성된 좌익 청년단이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 모습은 19세기 농민항쟁에 주도층으로 부각되었던 하층민 조직의 양상과 비슷하다. 조선 철종대에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1862년 항쟁은 토호·요호부민이 주도하여 소빈농층 등 다양한 세력이 참여한 경우가 있고, 소빈농층이 주도한 경우도 있다. 소빈농층이 주도하는 항쟁에서는 초군(나무꾼)들이 주도세력으로 부각되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 산에 올라가 목재 땄감을 채취하는 사람들로, 대부분 생활이 어려워 품팔이나 머슴 일을 하며 살았다. 그들은 평소 집단을 이루어 노동하므로 공동노동조직을 갖고 있었는데 그 규모는 10-20명 정도에 이르며 노동의 성격에 따라 100여 명 넘는 거대한 조직을 구성할 때도 있었다. 1862년 농민항쟁에서는 초군조직이 항쟁세력을 불러 모으거나 항쟁을 인근 지역과 연결해

주는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순수한 초군만이 아닌 다양한 소빈 농층이 함께 참여했다. 그리고 당시에는 상인들도 초군층과 유사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우두머리인 집장을 중심으로 항쟁에 참여했다(양진석 1992, 209, 214-216).

그리고 초군들은 항쟁에 참여할 때 집단적인 일체감을 보이기 위하여 대체로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나무 몽둥이를 무기로 들고 있었다. 이들의 행색은 항쟁을 할 때 새로이 갖춘 것이라기보다는 일상적으로 작업할 때 입던 복장 그대로였으나, 작업할 때 사용하던 수건을 머리에 둘러매어 복장을 통일함으로써 집단의 힘을 과시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직접 경험한 19세기 한학자 강위는, “수만의 무리들이 갑자기 몰려오고 백건을 두르고 막대기를 가졌으니, 그 모습이 위협스럽고 두려워 순종하고 거스리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다”라고 했다(양진석 1992, 217).²⁰⁾

이를 보면 1946년 항쟁에서도 초군조직과 유사한 하층민의 노동조직이나 상인조직이 청년조직이나 항쟁 선봉대조직의 기초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항쟁 당시 30명가량씩 무리를 이뤄 마을들을 순회하던 선봉대는 머리띠를 두르고 몽둥이를 들고 다녔기 때문에 주민들이 ‘몽둥이 패’라고 불렀는데, 그들의 모습은 1862년 항쟁을 주도한 초군들의 모습과 흡사하다.

(2) 친족관계: 일가주의적 동질성에 의한 결합

영천에는 ‘남조북정(남쪽에는 梟씨, 북쪽에는 鄭씨)’라는 말이 지금도 회자할 정도로 2대 성씨인 창녕 조씨와 오천 정씨 집안을 비롯하여, 안동 권씨, 벽진 이씨, 영천 황보씨 등이 대대로 친족관계를 이어나 동성마을이 많다. 이런 마을에서는 같은 성씨의 친족들이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니 한 집안이라는 일가의식이 강했다. 윤희숙은 이를 일가주의라 불렀는데(윤희

20) 姜璋, 『古歡堂收草』 권 4, 「擬三政球弊策」.

속 2003), 10월항쟁에도 이러한 친족 간의 결속력이 작동하였다. 그리고 인접한 마을의 서로 다른 집안들끼리, 또는 같은 집안 내부에 서로 다른 계파들끼리 오랫동안 경쟁하다가 갖고 있던 원한들이 항쟁기에 폭발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10월항쟁기에는 신분·계급적 결속력 또는 새로운 이념에 의한 결속력이 친족 간의 결속력과 다양한 형태로 얽혀서 나타났다. 이를 친족 간의 결속력에 계급적 결속력이 결합한 ‘친족-계급 공동체’와 친족 간의 결속력에 이념적 결속력이 결합한 ‘친족-이념 공동체’로 나눠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친족-계급 공동체’의 사례로는 화북면 자천리를 들 수 있다. 이 마을에는 정도영 등 지주인 정씨 집안과, 이들의 소작농이 다수인 손씨, 함씨 집안이 함께 살았다. 정도영의 아버지 정진사네는 소작인들에게 소작료를 가혹하게 징수했으며, 이에 손씨, 함씨 집안과의 갈등이 심했다. 1946년 10월항쟁에는 손씨와 함씨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주인 정씨 집안을 공격했다. 그러자 항쟁 직후에는 정도영의 당질 정기환이 우익조직인 국민회의 청년단장을 맡아 진압에 앞장섰으며, 항쟁주도자의 가족들을 학살하는 등 그 진압형태 또한 몹시 잔인했다.²¹⁾ 이에 손씨와 함씨 중 일부는 입산을 했다. 1947년에는 손재필과 함석전 등이 나서서 정기환을 암살한 뒤 자신들도 체포되어 공개 총살당하는 일도 있었다(화북면 함○○, 이○○, 오○○ 증언; 경북대 NGO센터 2009, 143). 반면, ‘친족-이념 공동체’의 사례로는 영천읍 괴연동을 들 수 있다. 이 마을에는 해방 이전부터 지주이자 부유한 양반층인 밀양 박씨와 가난한 평민층인 반남 박씨 간의 갈등이 대대로 있었다. 그런데 화북면 자천리와는 반대로 항일지식인이 많던 밀양 박씨 집안사람들은 1946년 10월항쟁에 적극 참여했다. 그러자 반남 박씨는 밀양

21) 항쟁 직후 화북면 자천리에서는 국민회 청년단의 안내를 받은 충남경찰부대와 서북청년단에 의해 10여 명이 오리장림 숲 등에서 사살되었다. 그리고 구반회와 손수필 등은 가족이 항쟁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불합격 영천경찰서로 이송되던 도중 차 안에서 경찰에게 짓밟혀 사망했다(진실화해위 2010, 89).

박씨의 활동을 경찰에게 밀고하는 등 우익활동에 앞장섰으며, 그 일부는 경찰에 투신하여 지역 안에서 세력을 키웠다. 이로 인해 밀양 박씨 집안사람들은 당국의 탄압을 받아 박학덕을 비롯한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집안의 청년들은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영천을 박○○ 증언; 경북대 NGO센터 2009, 206). 이 두 사례는 마을공동체 안에서 계급적 갈등이 집안 간의 갈등과 결합하여 이념적 갈등으로 전화하게 된 경우를 상반된 형태로 보여 준다.

마을 지주인 동시에 친족공동체 지도자가 항쟁 지도자가 되면서 ‘친족-이념 공동체’가 ‘마을-이념 공동체’로 나아간 사례도 있다. 화북면 구전리에서는 마을 지주인 황보집이 남로당 경북도당 간부로 활동했고, 금호면 도남동에서도 마을 지주이자 광주 안씨 종손인 안재기가 군 인민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마을 지도자와 소작관계나 고용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중에는 같은 집안의 일가친척도 있었고, 성씨가 다른 소작농의 집안도 있었다. 이 두 마을은 마을공동체 전체가 마을 지도자의 지도에 따랐고 10월항쟁이 일어나자 공동체 전체가 항쟁에 참여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을 지도자들을 정치적 존경심, 경제적으로 종속된 상태에서의 이해관계, 그리고 친족공동체 안의 일가의식이 복합된 상태에서 추종했다. 그들은 10월항쟁 이후에도 지도자의 집안사람들이 당국의 탄압을 피해 입산하여 유격대를 조직하자, 식량을 지원하고 심부름을 했다. 즉 공동체 내부에서 보조적 동원세력으로서 지도층 일족과 계급관계가 반영된 역할 분담을 한 것이다. 이 마을들은 혼인으로 인척관계를 맺은 인근의 여러 마을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나, 한국전쟁 전후에는 당국으로부터 ‘좌익 마을’로 낙인이 찍혀 수십 명이 함께 학살되는 등 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화를 입었다(금호면 안○○, 화남면 황○○ 증언).

한편, 위의 사례와 달리 10월항쟁기에 친족공동체 안에서 좌우익 갈등으로 분열이 일어난 사례가 있었다. 자양면의 오천 정씨 집안에서는 10월항쟁 이전에 항일운동을 하던 정규식과 친일인사인 정만식이 대립하고

있었다. 그런데 10월항쟁기에 정규식이 중심이 되어 같은 일문의 정만식의 집에 불을 질렀다. 이후 정규식은 자양면의 유격대 지도자가 되어 활동하다가 1949년에 학살되었다. 그런데 당시 영천의 거의 모든 마을에서는 이 지역의 최대 성씨인 오천 정씨 문중 내부에 좌우익이 분열하여 갈등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 때문에 이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도 오랫동안 단합하지 못했다고 한다(자양면 정○○, 이○○ 증언; 경북대 NGO센터 2009, 171).

(3) 마을 자치조직의 전통: 지역과 마을공동체의 동질성에 의한 결합

영천의 10월항쟁에는 면 단위나 마을 단위에서도 다양한 지도층이 있었다. 과거 면장이나 구장 등 행정조직의 수장 중에 친일파가 아니었던 사람들, 국민학교 이상을 나온 지식인, 한학자, 자영농 이상의 마을 유지들은 그러한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항쟁에 참여한 면이나 마을 단위 지도층의 구성을 보면, 이를 19세기의 마을 자치기구이자 농민항쟁의 주도조직이었던 향회(민회)와 연관 지을 수 있다.

향회는 본래 향촌지배층인 사족(士族)들이 모여 향촌교화와 부세징수의 문제를 논의하는 장이었고, 수령의 향촌통치를 보좌하는 기구였다. 그러나 18세기에 이르르면 조세정책과 제도가 자주 바뀌게 되고 정규적인 세외에도 지방에서 여러 명목의 수취가 있게 되자 지방사회의 자치영역이 확대되었다. 그래서 향회에는 양반뿐 아니라 일부 평민들, 특히 부농, 상인, 하급관리 등으로 구성된 요호부민들이 향회에 참여했다. 당시 일부 토호와 요호부민들은 막강한 조세부담을 지면서 권력의 수탈 대상이 되어 관권과 대립하고 있었는데, 향회는 그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중요한 장이었다. 또한 당시에 전파되었던 대동사상은 향회의 참여 폭을 넓히는 데 영향을 주었다(안병욱 1987, 154-157). 이로써 이 시기의 향회는 수령, 이서층이 주도하면서 수탈을 위한 들러리 기구가 되었던 협의의 향회와, 향촌의 대소민인이 모두 참여하는 광의의 향회로 구분되었다. 광의의 향회는 민회(民

會)라 칭했으며, 1862년에는 주로 농민항쟁을 모의한 주모자들에 의해 소집되었다. 그들은 각 면리의 향임(鄕任)이나 두민(頭民)들에게 통문을 돌려 소집이유와 장소 등을 전달하고 이들을 통해 농민들을 동원했다. 그리고 집강(執綱), 존위(尊位), 두민(頭民) 등으로 표현되는 향촌사회 말단 행정조직의 담당자들은 항쟁 지도부와 농민들을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을 담당했다(백승철 1992, 319-320).

1862년 항쟁 중 진주, 단성의 항쟁이 향회를 발판으로 일어났다. 인동(지금의 칠곡군)항쟁도 향회를 계기로 일어났으며, 당시 이 지역의 수령이 “4월 9일에 향회 운운하며 북삼, 약목, 서면의 민인들이 도당을 불러 모아 아홉 개 면민으로 동조해 참가한 자가 몇천 명이나 되는지 모를 정도이다(『壬戌錄』, 44)”라고 보고한 기록이 있으며, 일부 면민들이 향회를 소집하자 수천 명 군민들이 참가하여 파괴, 방화하는 난으로 변했다고 했다. 1862년 10월 영천 신녕에서도 항쟁이 발생했는데 이 항쟁에서 향회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자료에 기록된 것이 없으나, 1837년 자료에는, 당시 영천의 수령이 “향회란 사론이나 읍사로서 크고 중요한 일이 아니고서는 함부로 소집할 수 없는 것인데도 이 몇 년 사이에 하나의 일만 있어도 모이고 지시 하나만 내려도 모여 선비를 협박하고 민심을 소란케 하는 등 그 폐가 어디까지 이를지 모르겠다(『永川鄕會中下帖』 『牒移』 1837)”라고 한 기록이 있다(안병욱 1987, 168-170).

즉, 19세기의 향회(민회)는 토호·요호부민층이 주도하던 마을 자치기구로서 1862년 항쟁의 주도적 조직 역할을 했다. 이는 1946년 영천에서 민족자주적 의식을 가진 토착지주와 지식인층의 주도하에 군 인민위원회가 구성되어 항쟁 주도조직이 되고, 면이나 마을 단위에서 다양한 지도층들이 조직적, 비조직적 형태로 함께 참여한 사실과 연관지을 수 있다.

4) 항쟁의 전개형태와 전통적 농민항쟁 경험과의 연관성

주민들의 증언들을 모아 보면 영천에서는 군, 면, 마을로 이어지는 각 단위에서 순차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 항쟁의 형태가 거의 유사했다. 이 과정에 방화와 살인 등 폭력적 과정이 뒤따르기도 했는데, 이는 10월 2일 대구항쟁의 여파를 그대로 전달받은 공격형 권력 장악지역의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는 이 점을 비조직적 항쟁의 징표로만 보았다.

그러나 농민들의 이러한 행동방식은 19세기의 항쟁에서도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당시의 농민들은 격쟁·상언, 등소·호소, 결당작란(結黨作亂) 등 다양한 형태의 저항을 벌이면서, 개인적 합법적 투쟁에서 점차 집단적·폭력적 투쟁으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저항을 거치면서 농민들의 계급의식은 자신들의 적이 누구인가를 규정함으로써 증오의 단계에 머무는 소극적 수준으로부터 스스로 계급적으로 결집하여 행동의 단계로 나아가는 적극적 수준으로 발전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19세기 항쟁은 항쟁의 최고수준인 봉기의 형태로 일어날 수 있었다(고석규 1992, 23). 특히 농민들이 무리를 모아 폭력적인 투쟁을 벌이는 ‘결당작란’의 방식은 전통적 농민항쟁의 주요한 방식 중 하나였다. 이는 투쟁대상을 기준으로 토지, 부세, 수령에 대한 것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수령에 대한 결당작란은 자주 발생했다. 농민들은 수령의 각종 침탈에 맞서 그를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관정에 난입하여 축출하고 살해를 기도했다(한상권 1992, 101-105). 한편 향품(鄕品)들이 수령, 이서와 결탁하여 농민들을 침탈할 때가 많았으므로, 이에 항쟁과정에서 농민들이 양반들의 집을 습격하여 부수거나 방화하거나 또는 살상하는 일도 있었다. 1862년 항쟁 시에는, 농민들은 관청의 이서를 죽이고 시체를 끌어다 불에 넣어 태워버리기도 했으며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으며, 향품과 호족(豪族)들의 집을 태우거나 수령을 집을 주어 쫓아내기도 했다(양진석 1992, 217-220).

1862년 영천에서는 10월경 신녕에서 농민항쟁이 일어났다. 경상도읍

지(慶尙道邑誌)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신녕은 인구 20,469명이 살고 있던 소읍이었는데 농민 수천 명이 이서들의 부정한 수취에 반발하여 봉기를 일으켰다. 그들은 각자 짚단을 한 묶음씩 들고 무리를 지어 관부로 들어가 준비한 짚단으로 이서들의 집에 불을 질렀다. 또한 연일 관정에 뛰어들어 수령에게 항의시위를 하고 수령도 붙잡아서 혼을 내었는데 그가 애걸하자 풀어주었다. 위기를 모면한 수령은 감영으로 줄달음쳐서 이 사실을 보고했고, 이에 영차(營差)가 병력을 끌고 성으로 갔으나 농민들은 오히려 그를 쫓아내었다(『경상도읍지』 신녕 편 1833; 망원한국사연구실 1988, 243, 424).

한편, 1894년 갑오농민전쟁 시 영천에서는 8월 10일경에, 신녕에서는 9월 3일경에 항쟁이 일어났다. 8월의 영천항쟁은 고종실록에 기록이 있다. 이에 의하면, 이 민란은 결세와 부세가 과중하고, 군수 홍용관의 관정이 탐욕스러워 일어났으며, 정용채, 정기석, 이승연, 박동업 등이 주도했다고 한다. 그리고 “화란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무리들이 모여들어 민가를 불사르고 관아에 함부로 뛰어들었으며 수령을 들어다 내버리는 변고까지 있었다”라고 한다(『고종실록』 고종 31년 10월 13일 기사).²²⁾

이상의 내용을 볼 때, 1862년 신녕항쟁의 전개형태는 신녕의 1946년 항쟁과 유사한 면이 있고, 1894년 영천항쟁의 전개형태는 군수 이태수를

22) 원문은 다음과 같다.: 議政府啓: …(중략)… “卽伏見永川按覈使李重夏狀本啓下, 則臚列諸犯首從, 以待處分, 而該邑民擾, 其源有三. 一則結賦過重也, 一則官政貪婪也, 一則明禮宮洩稅也, 令廟堂稟處’爲辭矣. 今此永民之起擾, 始聞新令之調役, 妄議官吏之掩匿, 樂禍之徒, 接踵而聚, 燒毀人家, 攔入官衙, 至有昇棄之變. 犯分干紀, 自底罔赦. 鄭容采本以有名亂類, 一邑皆曰可殺, 今又首倡作擾, 萬戮猶輕. 而方在逃躲, 飭令刻期跟捕, 卽施一律. 鄭基碩雖曰次狀頭, 聚黨作變, 與首倡二而一也. 李承然稱以推錢, 乘勢倡亂, 奪衣逼辱, 罔有紀極. 上項兩犯, 衆招同然, 渠皆自服, 令道臣大會軍民, 梟首警衆. 朴東業懷憾乘亂, 至犯內衙, 合施次律. 嚴刑三次, 遠惡島限己身定配. 李正用等三人, 同惡相濟, 指證莫掩, 竝嚴刑二次, 絕島定配, 其餘諸囚, 使之分輕重酌處. 前郡守洪用觀屢典之餘, 忍行割剝, 久積闔境之怨, 竟遭無前之變, 合施重劬, 贓錢數數, 令法務衙門徵奉. 至於結洩滋弊, 實爲民隱攸關, 當此經擾之後, 宜施益下之政. 結戶之減斂, 宮洩之還給, 竝依覈啓施行何如?” 竝允之(『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1894) 10월 13일 2번째 기사, 『조선왕조실록』 36책 고종 32권 54장(영인본 2책 524)).

살해한 1946년 영천읍 항쟁과 유사한 면이 있다. 과거의 항쟁에서 농민들이 봉건제적 수탈에 대한 분노를 악덕수령이나 이서, 양반에 대한 결당작란으로 표출했듯이, 1946년에는 봉건제와 미청산된 일제잔재와 관련하여 맺힌 분노를 친일 군수와 관리, 경찰, 악덕지주에 대한 결당작란으로 표출했다. 19세기의 항쟁도 그 과정이 완전히 비조직적이고 무계획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전국적 항쟁지도부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그 힘이 약한 상태에서는 지방 단위에서 강하고 격렬하게 항쟁이 일으켰다 해도 결국 막강한 관군의 물리력 앞에 진압되었다. 결국 과거 항쟁의 과정이 미완인 상태에서, 1946년 항쟁에서도 반복되었다.

이처럼 1946년 10월의 영천항쟁의 양상이나 형태는 당 조직이나 노동조합조직 등이 영향을 미쳤던 도시지역의 항쟁보다는 반세기 전인 19세기에 발생했던 전통적 농민항쟁의 양상과 흡사한 면이 있다. 물론 과거 항쟁과 1946년 항쟁은 차이점도 있다. 과거의 항쟁에 비해 1946년 10월항쟁에서는 외래적 힘의 규정력이 훨씬 더 중층적이고 막강했다. 그러나 1946년 10월의 영천항쟁은 신작로를 타고 들어온 새로운 세력에 의해 전파되었지만, 그 속에는 불과 반세기 전에 수행했던 전통적 농민항쟁의 경험들이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1946년 10월항쟁에서 농민들이 ‘자발적 조직성’을 형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1946년 10월 대구항쟁이 일어난 뒤 영천의 항쟁은 10월 2일 밤부터 시작하여 며칠간 지속되었다. 영천항쟁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항쟁에 다수의 인원이 참여했고 항쟁 강도가 상당히 높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영천항쟁을 경북 북부지역의 항쟁에 비해 비조직적이고 폭동적인 성격을 나타낸 대표

적인 사례로 보면서 그 원인 중 하나를 경북 북부지역과 달리 항쟁 지도세력이 미약했던 것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영천항쟁은 대구에서 군 단위 → 면 단위 → 마을 단위로 순차적으로 전파되었는데, 이와 같은 전파형태를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항쟁이 비조직적이었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역 자체에 외부의 영향을 신속하게 수용하여 마을 단위로까지 전파할 수 있는 군 단위, 면 단위의 주도층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증언에 의하면, 영천항쟁에는 인민위원회, 농민조합, 민주청년동맹 등의 조직이 주축이 되었으며, 군 단위에서 마을 단위에 이르기까지 당시 친일세력이나 행정당국의 정책을 반대하는 다양한 층들이 참여했다. 항쟁 주도층을 몇 갈래로 나눠보면 첫째, 군 단위 지도자급 인사들을 들 수 있다. 그들은 항일운동을 했던 지식인, 지역 명망가, 지주계층이 대부분으로 마을이나 친족공동체 안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둘째, 계몽적 지식인, 한학자, 지역유지, 면장·구장 등 면 단위 또는 마을 단위의 지도자나 여론 주도층을 들 수 있다. 이 두 부류의 인사들은 지주나 지식인층, 마을유지들로서 항쟁 당시 연령대도 다소 높은 편이었다. 셋째, 청장년층으로 상인과 학생, 소작농민이나 하층민 가운데 행동세력으로서 선봉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다. 이처럼 항쟁에 다양한 인사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것은 영천항쟁이 특정한 계급의 틀을 넘은 전선(front)의 성격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계급적 동질성에 의해 결합한 하층민 조직, 일가주의적 동질성에 의해 결합한 친족공동체, 마을 자치조직의 전통 등이 사회경제적 원인이나 이념적 요소의 기저에서 이러한 전선 형성을 위한 여론 형성과 일상적 조직화의 기반이 되었다.

1946년 10월의 영천항쟁의 양상이나 형태는 당조직이나 노동조합조직 등이 영향을 미쳤던 도시지역의 항쟁보다는 조선 후기에 발생했던 전통적 농민항쟁의 양상과 흡사한 면이 있다. 특히, 1894년 영천항쟁의 전개형태는 1946년 영천읍 항쟁과 유사한 면이 있다. 항쟁의 주도조직으로 추정되

는 인민위원회 등의 참여인사를 보면 조선 후기 농민항쟁의 주도조직인 향회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었으며, 항쟁의 선봉대가 되었던 상인조직이나 하층민의 노동조직도 당시 농민항쟁의 주도조직인 초군조직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물론 전통적 항쟁에 비해 1946년 10월항쟁에서는 외래적 힘의 규정력이 훨씬 더 증충적이고 막강했다. 그러나 해방 이후 미군정기에 지역공동체의 외부세력에 의해 전파되었던 영천항쟁 속에는 불과 반세기 전 지역 농민들이 수행했던 전통적인 항쟁의 경험들이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1946년 10월항쟁에서 농민들이 ‘자발적 조직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참고문헌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NGO센터. 2009.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2008년 피해자현황조사 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경북 영천시』.
- 고석규. 1992. “18·19세기 농민항쟁의 추이.” 『1894년 농민전쟁연구2』. 역사비평사.
- 김진화. 1979. 『일제하의 대구의 언론연구』. 화다출판사.
- 내무부 치안국. 1952. 『대한경찰전사 제1집: 민족의 선봉』. 내무부 치안국.
- 대구·경북역사연구회. 2001. 『역사속의 대구, 대구사람들』. 중심.
- 망원한국사연구실 19세기 농민항쟁분과. 1988. 『1862년 농민항쟁』. 동녘.
- 박찬승. 2010. 『마을로 간 한국전쟁』. 돌베개.
- 백승철. 1992. “개항 이후(1876-1893) 농민항쟁의 전개와 지향.” 『1894년 농민전쟁연구2』. 역사비평사.
- 안병욱. 1987. “19세기 민중의식의 성장과 민중운동: ‘향회’와 ‘민란’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통권 제1호. 역사비평사.

- 양진석. 1992. “1862년 농민항쟁의 배경과 주도층의 성격.” 『1894년 농민전쟁 연구2』. 역사비평사.
- 영천경찰서. 1979. 『대공인적위해자조사표』. 영천경찰서.
- 윤형숙. 2003. “전쟁과 농촌사회의 구조 변화.” 『전쟁과 사람들: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연구』. 한울.
- 2008년 피해자현황조사 용역사업단 영천시 지역조사팀. 2009.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2008년 피해자현황조사 용역사업 구술증언보고서』.
- 전현수. 2006. “10·1사건 판결문 분석.” 10·1사건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문.
- 정영진. 1990. 『폭풍의 10월』. 한길사.
- 정해구. 1988. 『10월인민항쟁연구』. 열음사.
- 중앙통신사. 1949. 『조선중앙연감』. 중앙통신사.
- 진실화해위. 2009a.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5권.
- _____. 2009b. “영천 민간인희생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7권.
- _____. 2010.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권.
-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미군정기 정보자료집: 시민소요·여론조사보고서. 1945.9-1948.6』.
- _____. 1996. 『미군정기 정보자료집: 질레트 보고서, 전범대 재판기록』.
- _____. 1999. 『미국국동사령부 G-2일일정보요약』 8·9·10권.
- 한상권. 1992. “18세기 중·후반의 농민항쟁.” 『1894년 농민전쟁연구2』. 역사비평사.
- 허은. 1992. “8.15직후 경상북도지역 지방인민위원회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중. 2004. “1945~1946년 대구지역 좌파세력의 국가건설운동과 ‘10월인민항

쟁'."『대구사학』75.

『壬戌錄』. 미상.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료총서8』. 1958. 국사편찬위원회.)

「永川鄉會中下帖」. 『牒移』. 1837.

『고종실록』. 고종 31년 10월 13일 기사(『조선왕조실록』 36책 고종 32권 54장.
영인본 2책 524).

『경상도읍지』 신녕 편. 1833.

姜瑋. 1883. 「擬三政掾弊策」. 『古歡堂收草』권 4.

브루스 커밍스. 1986.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HQ. 6th Division. 1946. *G-2 Summary of Kyongsang, Kyongsang Communist
Uprising of October. 1946.*

HQ. USAFIK. 1948. *The Quasi-Revolt of October 1946.*

투고: 2011.9.30 심사: 2011.10.17 확정: 2011.10.30
